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5편

Jeff Pippenger

2026-01-11

25번

요엘서는 네 세대에 걸쳐 점점 격화된 반역에 대한 증언을 통해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를 대면시킨다. 그 네 세대는 에스겔 8장에서도 묘사되는데, 거기서 네 번째 세대의 스물다섯 명의 남자들이 해에 절한다. 1888년의 반역 이후 13년이 지난 1901년에 재림교회는 교회를 이끌 위원회를 조직했다.

최초의 총회 집행위원회는 1901년 총회 회기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조직 개편 동안 설립되었고,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불과 13명으로 이루어졌던 1901년 이전 위원회에 비해 상당한 확대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위원 수는 늘어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끝을 처음과 동일시하신다. 처음에는 25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지도자였는데, 이는 성소의 한 반열과 대응되며, 그 반열은 24명의 제사장과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다와 산헤드린은 그리스도 시대 반역의 두 상징이다. 산헤드린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대표한다. 산헤드린이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관여한 것은 일요일법 위기에서 재림주의의 역할을 예표한다. 산헤드린(예루살렘의 최고 유대 의회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됨)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갯세마네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께서 체포되신 뒤, 예수께서는 밤에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셨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할 증언을 찾았고, 그분을 신성모독과 반란으로 고발하는 증인들을 세웠다.

가야바가 예수에게 그가 메시아(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직접 묻자, 예수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고, 이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선언했다. 공회는 그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로마식 처형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를 반역 혐의로 고발하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다. 실제 십자가 처형은 빌라도의 명령 아래 로마 병사들이 집행했으나,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무리의 압력에 빌라도가 굴복한 뒤에야 이루어졌다(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택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교회들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배반과 배척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장면들이 재연되어 왔고, 앞으로도 거대한 규모로 다시 재연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미혹이 큰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빛을 거절하는 만큼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하는 자들은 파멸적인 미혹 아래서 행동한다. 고통과 거짓 증언이 커져 공공연한 반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지도자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은 몸과 혼과 영까지 지배하는, 너무도 현혹적인 힘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그 권세 아래서 영혼들이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켜 거짓을 믿게 된다. 그들은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이렇게 외친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 주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로 지금도 이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장면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에서 떠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닐 때 인간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게 되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도 놀랄 필요가 없다. 어떠한 끔찍한 전개에도 경악할 필요가 없다. 불경건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배반했던 자들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들의 아버지 마귀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질문을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도들 안에서 배반당하고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년 1월 30일.

그 본문이 말하는 바가 참으로 그대로의 의미라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자들은 그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미혹을 받는,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외의 어떤 지도자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은 몸과 혼과 영이 모두 매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마력은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그 힘 아래에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는 데서 돌아서 거짓을 믿게 된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자들은 십자가와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정표에 이르기 전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제안할 것이다. "화이트 자매가 이 말을 썼을 당시의 상황은 그 특수한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허튼소리.

물론, 화이트 자매가 그 말들을 기록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사실 그녀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주석이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랬듯이 예언자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신다. 예언자가 현재의 일들을 기록할 때, 그는 동시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재림교회 지도부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스물다섯 명으로 대표되며, 그들은 또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편에 섰던 250명과 예언적으로 상응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서의 반역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반복한 자들로 화이트 자매에 의해 지목되었다는 점이다.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힐 때 늦은 비가 시작된다고 직접 가르친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릴 것이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A. T. Jones와 E. J. Waggoner의 기별과 함께 1888년 대총회에 내려왔다고 직접 가르친다. 그녀가 그 대회에 있었을 때 반역에 너무도 압도되어 짐을 싸서 떠나기로 했지만, 한 천사가 그녀에게 머물러 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라의 반역이 반복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말세를 위한 증언이 아니라면, 왜 그 천사는 그것이 기록되기를 원했겠는가? 만약 그것이 말세를 위한 증언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일요일법 위기 동안, 그리고 특히 그에 이르는 역사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산헤드린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 말고는.

존스와 왜거너의 기별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 “라오디게아 기별,”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로 제시되었다. 반역자들은 그 기별에 저항했고, 또한 예언의 신의 인도와 그 집회의 선택된 사자들을 거절했다. 화이트 여사는 또한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한 손길로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9-11 이후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는 고라의 반역, 스물다섯 명의 장로들의 반역, 1888년 지도부의 반역,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때의 산헤드린의 반역을 되풀이해 왔다. 그 스물다섯 사람은 가짜 레위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레위인은 섬기기 시작할 때 25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이십오세 이상 된 자는 회중의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들어가서 섬길 것이요, 오십세가 되면 그 봉사에서 물러나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다만 그 형제들과 함께 회중의 회막에서 직무를 지켜 돕되, 봉사는 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민수기 8:23-26.

레위인은 25세에 직무를 시작하여 5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섬긴다.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는 1844년 10월 22일에 하셨던 것처럼, 일요일 법령 때 레위인들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오시는 날을 누가 감당하겠으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는 은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며,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정련하여 그들이 의롭게 주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의 해들과 같이 주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1-4.

‘25’라는 숫자는 상징으로서 충성스러운 레위인뿐 아니라 거짓 레위인도 나타낸다. 그러므로 ‘25’라는 상징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등 두 부류의 예배자들의 분리를 가리킨다. 이십오라는 수는 레위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레위인들의 분리(정결하게 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분리는 일요일 법령 때 일어나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주요한 주제이다. 마태복음 25장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의 단순한 연속이라는 것은

합당하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여 드리려고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1, 2.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신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23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예수께서는 산헤드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심판은 '여덟' 가지 화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 할례의 여덟째 날, 부활의 여덟째 날, 아브라함의 여덟 세대, 430년 등등을 거짓으로 모방하는 것이다. '여덟'이라는 거짓된 수는 거짓 레위인과 상응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임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 내가 여러 번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너희에게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36-39.

마태복음 22장은 악한 자들을 단으로 묶는 비유로 마무리되고, 그리스도와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 사이의 마지막 대화로 끝난다. 그런 다음 24장에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며, 옛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사역을 그치신다. 그 장은 시작한 곳에서 끝나며, 그들의 집이 그들에게 텅 빈 채로 남겨졌다는 선언과, 그분이 처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던 곳이 이제는 텅 빈 유대인의 집이 되었다는 진술로 마무리된다.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성전과 그 임박한 멸망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하실 것이다. 그 멸망은 바로 그 세대, 곧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린 세대에 일어날 것이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 성전을 떠나셨으므로, 그가 제시하신 예언들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스도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전, 곧 라우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떠나실 때, 동시에 14만 4천의 인간 성전이 영원히 신성한 성전과 연합될 것이다. 예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셨을 때, 그는 그의 옛 언약의 백성과 영원히 이혼하셨다.

마태복음 11장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연속선의 오메가이다. 그 연속선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바벨과 바벨의 '죽음의 언약'의 시작도 함께 가리키며, 그 언약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오메가의 성취에 이른다. 그 구절은 11장부터 22장까지를 구성하는 구절들 가운데 정확한 정중앙에 놓여 있다.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11장부터 22장까지의 한가운데는 각각 기치 혹은 그 가짜 기치를 강조한다. 창세기에서는 할례였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베드로와 그 반석이였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올라올 자인 모조의 짐승, 곧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

용과 혼인한다.

십일과 이십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바로 그 의미이다. 11과 22는 십사만 사천의 언약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거짓 제사장직은 여덟 가지 화를 받았고, 같은 시점에 참된 제사장직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제사장들은 이레 동안 성별되었고, 여덟째 날에 봉사를 시작했다.

제사장들의 성별 7일이 여덟째 날 봉사의 시작으로 이어졌는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 8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81'이 제사장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데려오고, 또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취하여라. 또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였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이니라. ...

너희는 너희의 위임 기간이 끝나기까지 이레 동안 회막 문을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칠 일 동안 너희를 위임할 것임이라. 오늘 행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고 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낮과 밤 이레 동안 회막 문에 머물며 여호와와 명하심을 지켜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라. ...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내려왔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매,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외치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레위기 8:1-5, 33-36; 9:1, 2, 6, 22-24.

23장은 참된 레위인들이 인침을 받을 때 드러나는 거짓 레위인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은 더 이상 아무도 예수께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이어지는 23장에서 그는 여덟 가지 화를 선포하시며 산헤드린의 은혜 기간이 닫혔고 이제 심판의 집행이 시작될 것임을 밝히신다. 24장에서는 성전을 유대인들의 집으로 지칭하신다. 이 장들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1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인침의 마무리를 가리킨다. 팔모니의 11장의 알파 상징과 22장의 오메가 상징은 그 장들 속의 이야기에도 깊이를 더한다.

제23장은 속죄, 곧 숫자 23으로 나타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다. 그러나 이 장은 가라지와 거짓 제사장직, 거짓 레위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을 말하고 있다.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었지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었다.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이는 오직 아론의 혈통뿐이었다. 성경은 레위인들이 25세에 봉사를 시작한다고 밝히지만, 고향 자손들은 30세에 봉사한다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고핫 자손을 계수하라. 삼십 세부터 오십 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군대로 들어가는 모든 자를 다 계수하라. 민수기 4:1-3.

"30"이라는 수는 레위의 아들 고핫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들을 상징한다. 고핫의 아들은 아르람이었고, 아르람은 아론의 아버지였다. 레위는 '하나님께 붙다 또는 하나님과 연합되다'라는 뜻이고, 고핫은 '그의 임재 주위에 모이다'라는 뜻이다. 아르람은 '높여진 백성'을, 아론은 '빛을 지닌 자 또는 높임받은 중재자'를 뜻한다. 이 이름들은 함께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그려 내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십사만 사천 사이의 언약을 표상한다. 그 십사만 사천은 신적 성전과 연합하는 인간 성전으로, 그리스도께서 남은 백성을 자신의 성소로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내미실 때 그렇게 된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들을 들어 올려 높이시고, 그들이 하늘의 대제사장과 함께 비추임을 받게 하신다. 이는 그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추셨던 것과 같다.

"30"이라는 수는 제사장들을 위한 준비의 기간을 나타내며, 레위인의 나이인 25는 '줄 위에 줄'로 30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었지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0은 끝의 때인 1989년에 시작되어 미국의 일요일법에서 끝나는 준비 기간을 나타낸다. 레위인을 상징하는 수 25는 또한 두 부류 사이의 분리를 상징하며, 제사장과 관련해서도 분리를 드러낸다. 25는 일요일법에서 레위인과 가짜 레위인의 분리를 표시하고, 참된 제사장들과 참된 레위인의 맥락에서도 구별을 만들어 내지만, 가짜 레위인의 경우와 같은 부정적인 분리는 아니다.

고핫은 레위인들의 세 주요 분파 중 하나였다(다른 둘은 게르손과 므라리). 제사장 계통은 특별히 고핫의 후손인 아론을 통해 이어졌다. 아론은 레위로부터 4대째 후손이며, 제사장 특권은 이 고핫 계통 가운데서도 그의 남자 후손들에게만 제한되었다. 고핫 자손 전체(고핫의 모든 후손)는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영예를 맡았지만, 제단과 성소에서 실제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론의 가문뿐이었다. 아론은 해에게 절하는, 요엘서의 '노인들' 또는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장로들'과 동일한 네 번째 세대를 대표한다.

제사장들을 위한 24개의 순환 반열(조) 제도(그리고 음악가와 문지기 같은 보조 역할을 맡은 비제사장 레위인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됨)는 다윗 왕이 마련했다. 다윗은 아론의 자손들을 돌아가며 섬기도록 24개 반열(조)로 조직했다(역대상 24:1-19). 다윗은 제사장 사독(엘르아살 계열)과 아히멜렉(잇다말 계열)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24개 조로 나누었는데, 가문이 더 큰 엘르아살 쪽에서 16, 잇다말 쪽에서 8을 배정했다. 봉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각 반차는 1년에 두 차례씩 1주일 동안(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봉사했고, 큰 절기들(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모든 반차가 함께 봉사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도 음악, 문지기 등의 직무를 위해 24반차로 조직했다(역대상 23-26장). 이 제도는 솔로몬 때 시행되었고(역대하 8:14), 제2성전기까지 이어졌다. 세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비아 반차에 속해 있었다(누가복음 1:5; 역대상 24:10). 제사장 24반차의 순서는 제비를 뽑아 정했으며, 사가라는 스물네 반차 가운데 '여덟째'인 아비아 반차에

속해 있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 '아비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일으키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러나 스가랴는 일요일 법과도 연관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했던 날인 안식일이 그곳에서 최후의 시험이 되기 때문이다. 스가랴는 아비아의 반열, 곧 '여덟째' 반열의 제사장을 상징한다. 스가랴는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않아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다. 요한이 태어나자 스가랴는 요한의 이름을 두고 벌어진 논의에 참여했고, 그때 말을 했다. 마지막 때의 예언적 말함은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이다.

여덟째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하려고 왔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다. "아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아이를 무엇이라 부르길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적었다. 모두가 놀랐다.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59-64.

세레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비아 반열(여덟째 반열)에 속한다. 요한은 할례를 받는 여덟째 날에 이름이 바뀐다. 세레 요한은 제사장들로서 넷째 세대에 속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그들의 이름을(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바꾸시고 언약의 표로 그들을 인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은 남녀 개인에게도, 또한 공동체 전체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하늘에 있는 성전도 있으며,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기초를 놓으시고 성전 위에 머릿돌을 얹으신다. 상징으로서 '25'라는 숫자는 레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라기 3장에서 가짜 레위인들과 분리되고, 같은 본문에서 또한 정결하게 된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상징적인 성전이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가득 채운다.

자기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민족을 위한 생명의 샘으로 삼으셨다. 요셉을 통하여 그 온 백성의 생명이 보전되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들은 눈에 보이는 교훈과도 같아서, 요셉과 다니엘이 예배하던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영적 복을 백성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모든 일꾼, 그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모든 사람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다. 그가 구세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나눌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온 존재로부터 영적 생명의 물결이 흘러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인류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로 오셨다; 그리고 그의 영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어, 죄로 병들어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몸과 영혼 모두에 효력이 있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 날에,' 성경은 말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죄와

부정함을 씻기 위한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 13:1. 이 샘의 물에는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모두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

"이 샘에서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그 위대한 강이 흘러나온다. '이 물이 동쪽 지방으로 흘러 광야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회복되리라. 그리고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이 살게 되리라.... 또 강가, 곧 그 언덕의 이쪽과 저쪽에는 먹을 모든 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에스겔 47:8-12." 증언, 제6권, 227쪽.

에스겔의 성전은 가장 고도의 예언적 상징이며,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되 뜰은 제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그 명령을 에스겔의 성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성전의 치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두 숫자가 제사장직을 상징함을 알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수는 50규빗으로, 각 문 건물의 전체 길이로 11차례 반복된다(에스겔 40:15, 21, 25, 29, 33, 36 등). 50은 또한 어떤 벽과 방들의 길이에도 쓰인다(에스겔 42:7-8). 이는 바깥 문지방에서 안쪽 문지방까지 이르는 전체 문 통로를 규정한다.

25규빗은 분명히 두 번째로 두드러진 치수다. 이는 문 복합체의 길이와 너비로서 10차례 반복된다(에스겔 40:13, 21, 25, 29, 30, 33, 36). 50과 25를 결합하면 여섯 개 주요 문을 위한 일관된 50 곱하기 25의 직사각형 패턴을 이룬다. 이 50 대 25의 조합이 내부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들에 대한 건축적 설명을 주도한다. 성전 건물 자체에서 이처럼 체계적으로 빈번하게 반복되는 다른 조합은 없다.

레위인들은 25세에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했다(민수기 8:24: '스물다섯 살 이상이 되면 봉사를 하러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50세까지 섬겼다(민수기 4:3, 39, 43; 8:25: '오십 세가 될 때까지'). 따라서 봉사 기간은 정확히 25년이다(50 - 25 = 25).

그러므로 레위인의 봉사 25년 기간은 레위인들이 섬겼던 바로 그 장소인 성전의 문들과 구조를 특징짓는 25×50 규빗의 치수에 직접 반영되어 있다. 에스겔의 성전, 곧 승리한 교회와 14만 4천의 성전의 주요 치수는 그들이 섬기도록 되어 있던 바로 그 성전 속에 건축학적으로 설계되어 들어가 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도록 되어 있는 바로 그 성전에 46개의 염색체가 내장되어 있는 것과 같이. 팔모니께서는 개별 인간의 성전과 그분의 신부가 될 공동체적 몸 된 성전 위에 자신의 서명을 새겨 두셨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세상의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원칙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원칙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방면의 가르침이 주어져야 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로 교훈을 깨닫게 하겠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들이 아니냐. 이는 규례에 규례를 더하고, 규례에 규례를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들은 인내로 자녀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것을 늘 그들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혀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상쾌하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규례에 규례, 규례에 규례, 줄에 줄, 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였다.' 왜인가? 그들에게 임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님은 이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들이 그분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든지 하게 하시며,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그 확실한 결과에 맡겨두신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복하며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심령이다. 기도에 탁월함을 주는 것은 그것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신다; 그들이 "나는 이 일을 행하도록 마음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하면, 주께서는 이 성경 말씀 [이사야 28:13]이 성취될 때까지, 하늘의 지혜 없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판단대로 계속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너희는 "내 판단과 조화되는 어느 지점까지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지만, 그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지기를 거부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이지, "이것이 --의 의견이나 판단인가?"가 아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19.